

‘광주하게U대회 성공 개최’ 전문가 좌담회



정후식 편집국장



김호대 외식업지회장



박현길 숙박업지회장



김진강 호남대 교수



박향 광주시 복지국장

“남도의 맛·멋 세계에 알리는 계기 삼자”

광주일보는 지난 28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정후식 편집국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김호대 한국의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과 박현길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지회장, 김진강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박향 광주시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참석자들은 음식·숙박업 위생·진절 분야 대책 마련 등 U대회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들을 점검했다. 좌담 내용을 간추린다.



광주일보는 지난 28일 정후식 편집국장 주재 아래 음식업·숙박업 관련 대표 및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외국인과 외국인에게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광주의 맛과 멋을 보여주는 위한 외식업계의 준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김호대 지회장)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특히 먹을거리 분야에서의 노력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외식업협회와 모든 회원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맛과 멋을 자랑하는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깨끗하고 청결함, 그리고 맛과 멋을 모두 갖춘 남도 음식의 진수를 세계 속의 젊은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외식업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U대회가 개최되는 경기장 주변 업소에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부착된 수저통을 보급하는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형 호텔이 많지 않아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 어려움이 큼니다. 상무·융복·첨단지구의 쾌적한 숙박업소를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가요?

▲(박현길 지회장)광주지역 숙박요금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의 성공을 위해 적정 숙박 요금이 지켜지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광주시가 특급호텔은 부족하지만 크린 호텔, 크린 숙박업, 우수 숙박업 육성사업을 토대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그중에서도 청결하고 시설이 좋은 지정업소를 선별해 방문객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아오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안내전화(1330)가 준비돼 있고, 국제대회인 만큼 전화를 통한 통역서비스(1588-5644)도 준비돼 있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는 각종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더욱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인데, 청년문화

청결·시설 좋은 숙박업 지정

국내외 방문객 예약제 실시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해

선택시 언어소통 불편 줄여야

를 항상 가까이 접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면?

▲(김진강 교수)청년과 시민들은 이번 U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통합 분위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운동을 더욱더 활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시민의 자질과 세계도시에 걸맞은 도시풍격을 갖출 수 있는 시민적 의지와 혁신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데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U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은 세계 각국 대학생들간의 교류를 통해 학생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스포츠와 관광분야 학생들의 지식 및 문화교류의 장이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한차원 더 발전한다면 지역 대학생들이 관광산업의 인재로 커 나가거나 향후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아시아게임때는 식중독 사건으로 명제가 크게 실추된 있습니다. 행정 차원의 음식·숙박 부분 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박향 복지국장)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가는 가정 아래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대책도 세워두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좌식문화가 불편한 경기장 주변 및 외국인선호 음식점 중심으로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메뉴 선택시 언어 소통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음식 사진과 주재료 등이 영어·일어·중국어로 함께 표기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은 기온이 높아 식중독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해 시, 자치구 위생부서,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식중독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실제적 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식중독 사고 모의훈련도 실시 중입니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찬반 엇갈려

예산 절감액 10억 안팎 ... 실효성 의문

공청회서 시민의견 수렴

광주시가 내놓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여성발전센터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에는 시민,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조, 업체대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준공영제 개선 TF팀을 통해 광주시가 마련한 '경영합리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표준연비제 도입을 놓고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연료비 절감에 대한 업체와 운전원의 부담에 따른 시민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업체 규모별로 적정 근무인원 산정 및 표준인건비를 차등지급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서는 인건비 지원축소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산 절감액이 매년 1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2014년 시내버스 운영비가 1743억원 중 인건비(1063억원), 연료비(392억원), 차량감가상각비(77억원) 등 절감이 어려운 경직성 경비가 전체비용의 88%인 1532억원을 차지해 예산 절감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6월 중 TF 5차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5년 재정 지원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 광주에 다 모였다

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열려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 관심

'자동차 생산 선도도시' 광주시에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이 총 집결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자동차공학 전 분야에 걸친 학계·연구계·산업계의 기술동향을 교류하는 '2015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동차공학회(회장 한문식 계명대교수) 주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는 자동차공학의 기술동향을 대변하는 학술적 의미가 큰 행사로, 산·학·연을 망라

한 국내 최대 자동차공학 학술대회다.

이번 행사에는 파워 트레인 분야 등 8개 부문과 철도차량연구회 등 7개 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중국, 일본, 태국 등 6개국 1200여 명이 참여해 자동차공학 전 분야에 걸친 500여 편의 연구논문과 개발 사례 등을 발표했다.

손경종 광주시 자동차산업 과장은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광주시와 자동차 산업의 밀접성을 설명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서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룰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계획에 대해서는 참가자 대부분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多 가치 Green 동네만들기' 대상

광주시 공직자 정책제안 대회

광주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공모대항 결선 대회에서 '多 가치 Green 동네만들기'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참여 소통 나눔 정책 실현을 위한 '2015 정책제안대회' 최종 결선 대회를 열고 혁신 아이디어와 시민 불편개선 내용을 담은 제안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최순석 환경생태대국 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등

지역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SNS기반 다가치리민 서비스를 구축하고 포인트 적립, 펀딩 조성 등 단계별 실행 방안까지 포함된 쾌적하고 깨끗한 동네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

금상은 '다가는 안전표지판 설치'를 발표한 도시재생국 김상준 주무관과 '민주의 총 랜드마크화 추진'을 발표한 안전행정국 이성호 주무관이 수상했다. 은상은 기획조정실 최현주 주무관 등 3명, 동상은 소방안전본부 박상우 주무관 등 4명이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 경매! 무엇이 정답인가!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경매 배우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
- 1대1 실전사례 교육
- 임대 / 교육비 등 2200만원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지분이전으로 보장
- 연 12% 이상 수익률
- 투자금 1억원 이상
- 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

돈 빌려주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연 12~20% 이자 지급
- 차용금 1억원 이상
- 1년~2년 정도 기간
- 개인신상 비밀 보장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가능
- 매매가 1억 6400만원 (용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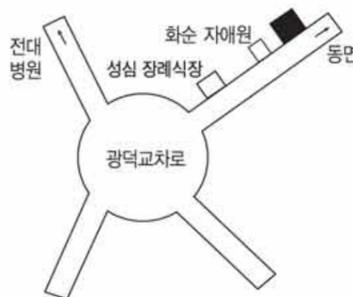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18번지, 19평
-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있음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가능
- 매매가 9500만원 (용자 7000만원 가능)
- 전세 8000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